

Wendy L. Widder 박사, 다니엘, 세션 6, 다니엘 3, 하나님의 우월한 능력과 그분의 종의 신실함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Wendy Whitter입니다. 6과 다니엘 3장, 하나님의 우월한 능력과 그의 종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인 다니엘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장에서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월한 능력과 그분의 종들의 신실함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 느부갓네살 왕의 능력보다 더 크고,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크며, 종들의 신실함이 이방 왕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강의 끝.

우선, 다니엘서의 이야기 장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교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은 지상의 네 왕국과 다섯 번째 영원한 왕국에 관한 동상 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은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세 명의 신실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으로, 그가 한 나무,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은 벨사살의 이야기와 벽에 쓴 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과 마찬가지로 인간 왕의 교만을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신실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니엘은 자신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성난 바다에서 네 마리의 돌연변이 짐승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상의 네 왕국과 하나님의 다섯 번째 영원한 왕국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구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후에 그 이야기를 살펴볼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자신이 이방의 신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차교차에 맞는 곳입니다. 이 장 역시 법정 이야기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왕의 궁정에서 봉사하고 실제로 왕의 정규 직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외국 포로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 장의 관심사 중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이 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일종의 신실함의 모델로 높이는 데 반드시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꼭 들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너무 많아서 중간쯤 되면 청중도 거의 따라부르게 될 것 같아요.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ESV를 다시 읽을 예정이지만, 제가 선호하는 번역을 삽입하여 좀 더 나무라거나 원본 아람어에 충실하게 수정하여 약간의 반복을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 ESV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큐빗, 너비는 6큐빗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행정관과 각 도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집하게 하였으니 . 이에 총독과 수령과 도백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니라.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섰고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이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수금과 백파이프 소리를 들을 때에는 , 그리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수금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모든 백성과 방언하는 자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니라 설정. 그러므로 그 때에 어떤 갈대아인들이 나서서 유대인들을 악독하게 고발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명을 내리셨나니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수금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다 떨어뜨리리라 하였나이다 내려가서 금 신상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기신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너희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이 사실이냐 이제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수금과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예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표정이 변하였다.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군대 중 용사 몇 명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을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으로 묶어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죽였느니라. 그러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묶인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사들에게 “우리가 결박하여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매이지 아니하여 불 가운데로 왕래하는 것을 보나니 다 상하지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으니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문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신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선포하였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총독들과 수령들과 도백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몸이 불에 능하지 못함을 본지라 그들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겹옷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서 불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만의 신.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어떤 백성이나 나라나 방언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그 사지를 찢고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할지니 다른 신이 능히 이를 수 없음이니라 이런 식으로 구출하세요.
그러자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승진시켰습니다.

좋아요, 그게 이야기입니다. 많은 반복. 그리고 그 반복 중 일부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일부는 약간 조롱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세운 금 신상이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심지어
9번까지 반복됩니다. 이는 왕이 세운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 주제는 이 장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며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라는 압력에 직면했을 때 우상
숭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일곱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하나님의 우월한 능력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월한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그분보다 우월하신 왕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장에서 몇 가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처음 일곱 구절에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글썄요, 그는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 프레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는 날짜 공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뛰어듭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장 뒤에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장에는 날짜 공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제2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3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조각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3장으로 가져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이 신상을 지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방금 이 거대한 금상을 만들었습니다. 2장에서 그는 금 머리가 있는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그는 금 머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서술자가 느부갓네살이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해설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대립되게 배치합니다. 최소한 이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거의 근육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금 본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방금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조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금 머리였습니다.

그는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상은 과장된 언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측정을 했다면 큐빗을 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큐빗도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60큐빗 x 6큐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이 조각상의 높이가 90피트이고 너비가 9피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각상에 비해 정말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일종의 기괴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것은 실제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을 훌륭하게 과시하기 위해 이것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마.

또 다른 가능성은 그것이 더 작은 조각상, 꼭대기, 오벨리스크 또는 토템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이 장의 요점은 그가 이 조각상을 만들었고 그는 그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표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 중 하나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상징하며,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디 보자. 따라서 우리는 여러 번 나타나는 공무원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각 공무원 그룹이 무엇을 담당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본문의 요점은 누구든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의 모든 거물들, 모든 권세자들을 불러 그의 명령에 따라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성대한 행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이런 악기가 다 있어요. 이러한 반복은 이 헌납 행사의 장엄한 성격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장에는 이 웅장한 조각상을 세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왕이 말하는 것과 백성이 하는 일에서 왕이 말하고 모두가 대답하고 모두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짓고 백성을 부르니 그 사람들이 다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라고 하니 그 모든 백성이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 말한 것에 대한 자동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에 어떤 갈대아인들이 나아온지라. 이곳은 유대인들을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서서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왕에게 특정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임금님이 임명하신 유대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인종적 편견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관리들보다 승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다니엘 6장에 이르면 그의 동료들이 함정을 놓아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불복종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다지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회주의자들이네요.

그들은 이 봉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칼데아 사람들도 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 사람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온갖 종류의 질문을 받습니다. 저자는 종종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관심이 없지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보다 승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악의적이더라도 텍스트는 그들이 악의적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비난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으며 왕의 명령은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법에 따르면 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비록 그들이 악의적이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기를 거부한 것은 반역과 불복종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종류의 행동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이 세 종, 즉 절하지 않은 세 유대인 사이의 대결을 봅니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느부갓네살이 폭발할 곳입니다. 그는 이 세 유대인에게 이 장의 도전, 즉 자신이 그들의 신에게 던지는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도전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이다. 나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신보다 더 강력합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감당할 도전입니다. 우리가 장을 진행하면서 그는 큰 소리로 반응할 것이며 느부갓네살은 이 신의 능력에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선, 왕은 그들에게 순종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사람이 그들 앞으로 끌려오자 그는 몹시 화를 내지만, 당신들이 예배하러 왔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재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드려 경배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놓친 경우에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 왜 그는 그들에게 관대했습니까? 왜 그는 그것들을 불 속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반역적이었습니다.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심지어 자원까지 투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그것들이 순응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불순종으로 인한 만족감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에서 그가 그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인간 왕입니다. 실제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의 신은 이에 대응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시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점령하고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낳았던 열왕기하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제 생각엔 비문에는 예루살렘에 갇힌 새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의 대장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신이 산헤립의 손에서 사람을 구출한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거의 메아리입니다... 또는 이것은 산헤립의 대장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한 다니엘서의 메아리와 거의 같습니다.

앗수르 왕은 너무 강해서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매우 유명한 본문 구절에 도달합니다. 이 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사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Shadrach가 아닙니다. 여기는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캐릭터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충실한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하나의 단위로서 그들은 이 충실한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사실 어려운 글입니다.

몇 가지 문제, 몇 가지 문제, 번역가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 일부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그것은 적절한 프로토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왕에게 느부갓네살아,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영원히 사시거나 그에 따른 모든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왕의 이름만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는 아람어의 발음과 악센트의 사용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번역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여 말하였나이다. 일부 번역에는 이 왕이 포함되고 일부 번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뭐야? 글썄, 구조적으로도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실제로 연설에서 그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존경스럽네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수무강 하소서라고 말했다면 더욱 존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그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들어와서 그에게 연설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경솔함이나 뻔뻔함처럼 들리는 것이 거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례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것을 읽는 방식은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이 칩을 어깨에 메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방어적인 어조로 말하는 모든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습니다.

좋습니다. 비전 블록은 5절에서 시작하여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솟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와서 땅에 닿지도 않고 온 지면을 가로질러 왔는데,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뚜렷한 뿔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본 적이 있는 두 뿔을 가지고 운하 독에서 있는 솟양에게 다가와 맹렬한 분노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가 그 솟양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격노하였다. 그는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 숫양은 그 앞에 설 힘이 없어서 그를 땅에 내던져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그의 세력에서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염소가 심히 강해졌고, 강해지더니 그 큰 뿔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늘의 사방 바람을 향하여 눈에 띄는 네 뿔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것은 하늘의 군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던져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왕자만큼 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이 그에게서 거두어졌고, 그의 성소는 헐렸습니다. 그리고 범법 때문에 정기적인 번제물과 함께 한 무리가 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을 땅에 던질 것이고, 행동하고 변영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거룩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자에게 이르되 이상에 나타난바 매일 번제와 멸망케 하는 죄과와 성소와 군대를 내어준 일이 언제까지 밟힐 것이니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 동안이니라

그러면 성소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관찮은. 그래서 그는 이 외뿔 염소가 서쪽에서 돌진하는 것을 보고 히네이와 함께 소개되거나 놀랍게도 이 외뿔 염소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을 가로질러 경주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와 같으며 아무것도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의 날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땅을 가로질러, 땅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눈 사이에 거대한 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뿔 달린 숫양에게로 다가와 맹렬한 힘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염소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염소는 이 숫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염소의 날뛰는 다음 개별 환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염소가 격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숫양을 쳤습니다. 숫양의 두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짓밟았다. 이것은 미친 염소입니다. 숫양이 이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숫양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가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도 숫양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숫양도 염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숫양에게서 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숫양을 염소에게서 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를 확대하고, 하늘의 군대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염소의 뿔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뿔에서 네 뿔이 나와서 하늘의 사방 바람으로 일어나 사방으로 가느니라. 그리고 그 중 하나에는 더 작은 뿔이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시야 블록의 나머지 부분인 작은 뿔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개의 큰 뿔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자라서 커지느니라. 엄청나게 자랍니다. 세 방향으로 엄청나게 자라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동시 도달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ESV는 그것이 먼저 남쪽으로 가고, 그 다음 동쪽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말한다.

아름다운 땅 또는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경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구가 실제로 전혀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 작은 별은 하늘의 군대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신성한 모임을 가리킬 때까지 자라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열왕기상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 이 작은 별은 몇몇 별들과 몇몇 성체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별과 호스트를 무너뜨리는 인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1절과 12절을 네 가지 다른 번역본으로 나열해서 읽어보면 모두 조금씩 다르게 다를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구문은 어렵습니다. 어휘도 어렵고 문법도 어렵습니다. 어렵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작은 별이 만군의 왕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호스트의 사령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석이 나오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로부터 군대의 사령관이 정기적인 번제물을 가져간다고 esv는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다소 어려운 단어를 반영합니다. 타미드입니다.

일부 직역에서는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에 두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매일의 제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 자체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tamid는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것은 바로 그러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뿔은 사령관의 정기적인 제사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소 곧 지휘관의 성소가 혈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과 매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범죄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범법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큰 질문입니다. 호스트의 범법입니까? 호스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범법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안티오코스의 범법인가? 작은 뿔의 범법인가? 누구의 범법입니까? 우리는 모른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자들은 양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장에는 범법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의 범법이 조금 까다로운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 작은 뿔이 이런 거창한 말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작은 뿔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 힘과 성공이 실제로 작은 뿔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미묘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단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뿔 뒤에 있는 어떤 손이 그 작은 뿔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은 뿔의 가장 큰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없애고 그 성소를 헐어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실제로 수동 동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묘합니다. 이 장은 격려하는 면에서 매우 미묘합니다. 때로 나는 그것을 인색한 위로라고 부른다.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허용된다는 힌트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힘을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의 신학에 맞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 왕들이 있는 곳. 이 위대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그는 왕이 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고, 여기의 주제와 딱 들어맞습니다.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접근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데, 그랬고,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든 이루어졌습니다.

숫양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번영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작은 뿔에 대한 설명에는 반복되지 않은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숫양에 대한 묘사와 염소에 대한 묘사에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진술이 여러 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 그 짐승에게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작은 뿔에 관해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숫양에 관한 것입니다.

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있습니다: 염소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숫양을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뿔은 더욱 크다.

물론 그 권력으로부터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비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귀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논쟁을 벌일 때는 항상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은 뿔에서 배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미묘한 힌트 중 또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이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 이 보잘것없는 포로들조차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게 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반응만으로도 그는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신은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썄, 당신은 느부갓네살이 19절과 20절에서 이에 대해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장에서 두 번째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진노하시고 진노로 가득 차 계십니다. 이 장은 이런 뜨거운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왕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용광로가 뜨거워지고, 왕이 더욱 화를 내고, 용광로가 더욱 뜨거워지며, 거의 왕과 용광로 중 어느 쪽이 더 뜨거워질까요? 방금 폭발했어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가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일곱은 완성의 수이다. 그래서 이 용광로는 가능한 한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 놓으라고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그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 일부.

여기 또 다른 힘의 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서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마도 그것이 얼마나 가연성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험령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은 망토, 튜닉, 모자 및 기타 의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배 냄새조차 나지 않고 나옵니다.

앞으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웅장하게 과시했고, 결국 그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 일부를 죽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왕의 캐리커처입니다. 그는 단지 미치광이입니다. 21-25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권능에 응답하시고 그 대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는 이 사람들 사이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번역에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은 다양합니다.

사드락, 메삭, 벤디고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사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에 던졌더니 이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의 용사들과 약하고 묶인 포로들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가장 위에 나오나요? 이 일이 일어나자 왕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네 명의 남자를 본다.

이제 본문은 이 네 번째 사람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를 보았다고 보고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사람이 몇 명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세 개를 던졌나요? 아, 그렇습니다, 왕, 우리는 세 개를 던졌습니다.

글쎄, 왕은 우리가 20개를 넣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20개를 넣었습니다.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네 번째 남자를 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네 번째 사람을 보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보았다고 보고한 사람은 느부갓네살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할 때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넷째 사람이 신들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을 말하는 번역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아람어의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아들이군요. 느부갓네살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네 번째 인물을 신적인 존재로 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의 부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구성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세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화재에서 구조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에 빠진다.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 있는 신성한 존재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이 장을 읽거나 이 장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 그런 식으로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들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왕에 대한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그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뻔하였느니라. 이 번역 중 일부에 따르면 그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실했는데 결국 순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우리가 교회의 순교자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신실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장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증인은 태수, 장관, 총독, 고문이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였지만, 그들이 불 속에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밧줄은 떨어져 나갔다. 그들의 밧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료였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말 훌륭한 송영으로 만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당신은 '와, 느부갓네살, 당신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지어다.

그는 그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몸을 바쳤습니다. 이야,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법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나는 너희의 사지를 찢을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단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히실 수 있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본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 장에서 그는 우월한 능력을 지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난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 답: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는 그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네 번째 남자의 이 질문으로 잠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은 불 속에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거기 있었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 속의 네 번째 인물이 필요하셨나요? 아뇨. 그냥 살려줄 수도 있었죠? 네 번째 인물은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화 물질로 그들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한 분은 네 번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글썄요, 제가 말했듯이 본문에서 그것을 보거나 보았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익을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이 불에 떨어져 자기 힘으로 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인물, 네 번째 신성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존재하기까지 도전했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인물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두 번째 일은 그로 하여금 권력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인물은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로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서술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네 번째 인물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도전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 즉 테이크아웃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이상 송배의 메시지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충실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은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합당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것을 화재 보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헌신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따를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신실함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 사람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대격변적인 회복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 사람과 함께 계셨고,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다니엘서 3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매우 분명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박해받는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4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Wendy Whitter입니다. 6과 다니엘 3장, 하나님의 우월한 능력과 그의 종의 신실하심입니다.